

웹진

대학스포츠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웹진 | 2015. 01 Vol. 3

커버스토리

광운대학교 축구부 <김민혁>

스포츠라이트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전통을 가진 정구 명문,
인하대학교 정구부

視視各各

학생선수들이 바라본 대학스포츠리그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Korea University Sport Federation



12월 7일 열린 대학농구 동아리 U리그 결승전은
 고려대학교 ZOO와 연세대학교 볼케이노의 경기였다.
 양교의 라이벌전이 동아리대회에서도 만들어졌다.
 결과는 94-74로 연세대학교 볼케이노의 완승!
 MVP로 선정된 연세대학교 정화웅은 9개의 썬샷을 포함
 총 32득점을 성공하며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다.

Contents

04



커버스토리
광운대학교 축구부
김민혁

09



스포츠라이트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전통을 가진 정구 명문,
인하대학교 정구부

11



Photo Time
제 4회 스포츠산업 잡페어 2014
대학농구동아리 U리그

대학리그 소식	2015 K리그 신인선수선발 드래프트	15
	신한은행 2014 농구대잔치 소식	17
	대학배구 학생선수들의 겨울나기	18
	2014 야구대제전 대학 선수 활약상	19
페이스메이커	춤 바람? 사교댄스? NO! '댄스SPORTS'의 매력	21
동아리 U리그	우리도 뽀대! 대학농구동아리 U리그	23
視視各各	학생선수들이 바라본 대학스포츠리그	25
멘토를 만나다	법무법인 에이팩스 변호사 겸 에이전트 장달영	27
그때그시절	성균관대 안방마님에서 홍익대 사령탑으로, 홍익대 야구부 장채근 감독	29
KUSF NEWS		31
취재 후일담		32



‘유종의 미’, 어떤 일 따위의 끝을 잘 마무리하는 성과를 의미한다. 항상 모든 일의 끝에는 유종의 미라는 단어가 따라붙는다. 모든 사람이 모두 멋진 결말을 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으련만, 원하는 결과 혹은 그 이상의 결과를 얻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력한다.

전국의 77개 학교에 속해있는 대학축구 선수들도 마찬가지였다. 제50회 전국춘계대학축구연맹전부터 시작해서 183일간 펼쳐진 ‘2014 카페베네 U리그’, 제45회 전국추계대학축구연맹전, 제11회 KBS N 추계 1, 2학년 대학축구대회,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그리고 2014 카페베네 U리그 챔피언십에 이르기까지 각자 다른 목표를 이루고자 녹색 그라운드를 열심히 누볐다. 이 중 광운대학교는 올 시즌을 마무리하는 왕중왕전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림과 동시에 분야별 개인상까지 모두 휩쓸며 대학축구선수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맘껏 누렸다.

숭실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상대하기 쉽지 않은 팀들과 한 조에 속했던 광운대는 전반기에 ‘무패’를 기록하며 승승장구해나갔다. 그러다 후반기 들어 잠시 주춤하면서 조 2위로 떨어지게 됐고, 숭실대에게 리그 우승을 내어줘야만 했다. 1위를 놓친 아쉬움이 원동력으로 작용했던 건지 광운대는 ‘토너먼트에



약한 팀’이라는 편견을 깨며 당당히 정상의 자리에 섰다. 더불어 올해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수여되는 ‘최우수 선수상’도 광운대의 몫이었다. 그 누구보다 값진 선물을 받은 올해의 MVP는 바로 1월호 커버인터뷰의 주인공, 광운대학교 주장 김민혁이다.

‘NO’에서 ‘YES’를 창출해낸다.

많은 대학선수들이 ‘2002 월드컵’을 보며 축구선수의 꿈을 키워왔다고 이야기한다. 김민혁도 그렇게 꿈을 키워온 선수 중 한 명이다. 한국의 테리우스 안정환에게 폭 빠진 11살짜리 꼬마는 곧장 부모님께 달려가 축구를 해야겠다고 선언한다. 기대와는 달리 돌아온 부모님의 대답은 ‘안돼!’. 하지만 자식의 꿈을 짓밟는 부모가 어디 있으랴. 부모님의 허락이 떨어진 후 김민혁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운동하겠노라 결심하며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그라운드를 밟았다. 최전방 공격수로서 첫 시작을 한 김민혁은 이후 여러 포지션을 거치며 지금의 포지션인 중앙 미드필더에 정착했다. 빠른 스피드보다는 뛰어난 드리블 실력과 안정된 패스를 선보이면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그의 능력은 광운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소로 손꼽힌다. 나아가 선수들 모두를 아우르는 그의 성격은 주장의 역할까지 소화해내기에 적합했다. 뿐만 아니라 올 시즌 총 8골을 뽑아내면서 광운대의 승리에 크게 가담하기도 했다. 결국 이렇게 다방면으로 뛰어난 그의 실력은 MVP 수상과 프로 축구단 진출이라는 결과로 인정받았다. 이 모든 것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선사해주었지만 이보다 더욱 감격스러운 것은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든든한 지원과 응원이다. 운동하는 학생선



수보다는 공부하는 일반학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한사코 축구의 길을 반대하시던 부모님은 이제 김민혁의 모든 선택에 ‘YES!’를 외치며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 김민혁이 축구를 하는 이유이자 원동력이 되어버린 ‘달라진 부모님’은 바로 김민혁 그 자신의 노력이 빚어낸 결실이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서의 추억, 광운대학교 축구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광운대학교는 토너먼트에 강한 팀이 아니다. 토너먼트 대회에서 그렇다 할 성적을 낸 적이 없으며 올 시즌 추계연맹전에서는 예선 탈락의 고배까지 마시면서 한계를 보였다. 때문에 왕중왕전 우승을 거머쥔 것이라는 상상은 애초부터 하지도 않았으며 우승 트로피는 그저 바라만 보는 멀리 있는 그대였다. 더욱이 힘들게 이뤄낸 결승 진출이 상대팀인 단국대학교의 홈경기로 치러지게 되면서 광운대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실제로 단국대 학생들의 응원 열기뿐 아니라 SBS가 생중계로 진행할 만큼 왕중왕전을 향한 축구팬들의 관심 또한 대단해서 긴장감은 배가 되었다. “저희도 홈구장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아쉬웠어요. 익숙지 않은 경기장에서 경기를 해야 하는 것도 걱정됐고요. 그래서 결승전 전날 미리 가서 적응 연습을 했는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추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좋은 성적으로 파죽지세의 길을 걷던 단국대와 주장 김민혁을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꿈꾸는 광운대의 맞대결은 그야말로 박빙이었다. 0대 0, 득점 없이 끝난 전반전으로 인해 후반전은 더욱 고조된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던 후반 7분, 광운대 정기운이 선제 골이자 결승골을 터뜨리며 우승을 확정 지었다. “경기력 자체는 양 팀 모두 비등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단합력’ 때문이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대학 축구에서 조직력과 단합력을 무기로 내세우는 팀들이 몇 있는데, 광운대가 그중 한 팀으로 손꼽힌다. 이런 좋은 팀 분위기는 경기장 밖에서부터 비롯됐다. 김민혁은 프로축구단 FC서울에 자유계약 선수로 선발되면서 다른 선수들보다 일찍이 취업 걱정을 덜었다. 들뜬 마음에 정신이 흐트러졌을 만도 한데, 그 반대였다. 아직 진로가 확정되지 못한 다른 동료들을 위해 더 열심히 패스하며 기회를 만들어냈다. “4년 동안 한 곳에서 생활하면서 힘든 일 좋은 일 함께 겪은 친구들이 가족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진심으로 친구들이랑 같이 잘 되고 싶었고, 결국은 모두 잘 풀려서 기뻐요.”

2014 U리그 3조에 편성된 후 총 12경기를 치렀고, 무패로 전반기를 마무리했지만 후반기 들어 흔들렸던 이유는 바로 대학축구 강호 송실대학교 때문. 특히 송실대 에이스 김승준과 주장 이태희를 마크하던 때를 떠올리면서 김민혁은 언거꾸 ‘힘들었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 힘듦을 이겨내고 끝내 웃을 수 있었던 건 바로 만능해결사 ‘조직력’ 덕분이 아니었을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광운대 주장’, ‘대학축구의 MVP’, ‘자유계약 선수’ 등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수많은 수식어들은 이미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다. 화려했던 대학생활을 뒤로한 채 프로선수로서의 첫발을 내딛기 위해 준비 중인 김민혁은 들뜬 마음보다는 담담한 마음이 더 크다. ‘열심히’는 기본이고 ‘잘’ 해야만 살아남는 프로의 세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심정뿐이다. 그래서 김민혁은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한파 속에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개인 운동을 하고 있다. 프로에 맞는 선수로 발전하기 위해, 또 많은 사람의 기대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리는 그다. “광운대학교 출신 선수 중에 가장 유명하신 분이 설기현 선배님이세요. 저희가 제주도로 훈련 갔을 때 응원 차 오셨었죠. 그때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좋은 말씀도 해주셔서 큰 힘이 됐었어요. 저도 선배님처럼 성공해서 꼭 좋은 모습으로 후배들 앞에 나타나고 싶어요.”

자신에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중시하기보다 그저 팀에 헌신하며 버팀목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김민혁. 그의 바람처럼 하루빨리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새로운 구장을 누비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길 응원한다.

글/박수지(대학스포츠허로그 대학생 기자단 명예기자)



광운대학교

김민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전통을 가진 정구 명문, 인하대학교 정구부



정구는 강하면서도 섬세함을 필요로 하는 상반된 매력을 동시에 가진 재미있는 종목이다. 정구공은 테니스공과 달리 굉장히 가벼우면서 촉감은 마시멜로처럼 말랑말랑하다. 이런 특성 탓에 정구공은 훨씬 민감하게 반응을 하여 옆으로 튕는 현상은 물론 뒤로도 튕고, 심지어는 ‘스네이크’라고 하는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움직임도 만든다. 이처럼 예측이 어려운 결과를 보여주며 정구만의 독특한 재미를 만든다. 또한 큰 힘을 필요로 하지 않아 부상이 적기 때문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관전하는 팬들에게도 색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복식 경기에서 선수 2명은 네트 근처에 위치하여 공격을 전담하는 ‘전위’와 후방에서 수비를 전담하는 ‘후위’로 역할 구분이 되는데 이들을 ‘파트너’라 부른다. 복식은 이렇게 ‘전위’와 ‘후위’로 구성된 ‘파트너’가 호흡을 맞추며 시합을 펼친다. 이때 각기 다른 경기 운영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들의 조합이 팬들에게 테니스와는 다른 재미를 보여준다.

정구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서 7개의 금메달이 걸린 전 종목(남녀 단·복식 및 단체전, 혼합 복식)을 석권하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전 종목 석권

이라는 어느 종목에서도 찾기 힘든 대기록을 달성하며 최강의 실력을 갖춘 한국 정구. 충분히 강한 존재감을 내비칠 만한 상황이지만 테니스라는 스포츠에 가려진 채, 그 진가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젊은 투지와 강한 실력으로 무장한 흔들리지 않는 불혹의 팀

테니스의 그늘에 가리어져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변 환경이 자신들을 외면해도, 몇 년을 물속에 있다가도 어떻게든 꽃을 피워내는 ‘백 년 만에 피는 꽃’ 가시연꽃처럼 오늘도 묵묵히 자신들의 개화(開花)를 위해 쉽 없이 코트를 누

비는 인하대학교의 정구부를 찾았다.

- 2014 전국춘계대학정구연맹전 단체전 3위
- 2014 동아일보기 전국정구대회 단체전 준우승
- 2014 국무총리기 전국정구대회 단체전 우승
- 2014 대통령기 전국정구대회 단체전 3위
- 2014 전국추계대학정구연맹전 단체전 우승
- 2014 전국체육대회 단체전 3위





문대용



김동연



김보훈

인하대 정구부의 올해 입상 기록이다. 출전하는 대회마다 입상을 하는 인하대 정구부는 정구로는 항상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톱클래스 실력을 갖춘 팀이다. 인하대 정구부가 창단된 것은 1974년으로 사람의 나이로 치면 불혹의 나이로 불리는 40살이 된 셈이다. 이런 팀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 그 안에 녹아든 20대 초반의 젊은 패기로 무장한 선수들의 조합은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으로 발현되어 인하대 정구부를 명문으로 이끌어왔다.

그리고 올해, 한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신체적 한계를 극복해내고 피나는 노력으로 걸출한 실력을 뽐낸 문대용과 올해 만 21세 이하 청소년 국가대표에 발탁된 '검증된 실력파' 박상민을 중심으로 인하대 정구부는 창단 이래 단 한번도 세우지 못했던 전국체전 우승이라는 새로운 역사에 도전했다.



박상민

전국체전과의 악연, 인연으로 바꾸겠다.

문대용이 오른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은 것은 7살이라는 어린 나이였

다. “2000년 1월 1일이라 정확히 기억해요. 나뭇가지에 찢리는 사고였죠.” 그때는 정구를 시작하기 전이라 정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 적응에는 어려움이 없었다는 그. 하지만 정말 없었을까?

“제가 복식을 할 때, 후위를 해요. 그런데 백핸드를 하려고 할 때, 결눈질로 전위의 움직임을 보고 공을 쳐야 하는데, 눈이 이러니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였죠.”라며 어려웠던 순간을 토로하는 문대용. 한계 극복의 비결은 ‘안 되면 될 때까지’의 정신으로 무장한 혹독한 연습이었다. “계속 연습했어요, 정말. 계속 그냥 될 때까지 했어요. 코치님이 워낙 완고한 스타일이셔서 될 때까지 연습했던 것 같아요.” 이런 노력의 결과로 그는 2013년 중국에서 열린 차이나스컵 국제정구대회 단식에서 2위의 성적을 거둘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문대용과 더불어 팀을 이끄는 박상민 또한 올해 초 국가대표 선발대회에서 개인 단식 우승을 차지하며 만 21세 이하 청소년 국가대표에 선발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나다. 또한 박상민은 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승부사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시합에서든지 패배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되는 경우에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심지어는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기려고 노력해요.”라고 할 만큼 승부욕이 강하다. 이런 두 선수가 이끄는 인하대학교 정구부. 올해는 창단 첫 전국

체전 우승, 노려볼 만 했다.

눈물은 동정을 얻지만 땀은 변화를 가져온다.

정구선수로 살면서 정구가 뭐냐고 묻는 질문은 그나마 양반이다. 심지어 ‘전구’냐고 묻기도 한다. 이런 현실에 놓인 정구를 조금이라도 알리기 위해 일반 학생들에게 무료 강습을 하려고 한 적도 있다. 학교 운동장 한편에 플랜카드를 걸기도 하고, SNS도 활용해보았다. 하지만 찾아온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예상 밖이었다. 지독히도 심한 변화구를 날리는 현실이다. 정구선수로서의 삶은 아직도 힘겹지만 하다. 하지만 정구 덕분에 방향을 멈출 수 있었고, 무너져 가던 집도 다시 세울 수 있었다. 그리고 꿈이라는 것도 꿀 수 있게 되었다. 이들에게 정구는 전부와도 같기에 절대 이렇게 쓰러질 수 없다.

취재하던 날, 인하대 정구부 훈련장에는 새하얀 눈꽃이 조용히 내렸다. 소복이 내리던 하얀 눈꽃 속에서 눈물 대신 땀을 흘리며 공을 넘기며 만개를 준비하던 가시연꽃들. 가시연꽃의 꽃말은 ‘그대에게 행운을’이다. 꽃말처럼 인하대 정구부, 그대들에게 행운을.

글/이태민 (대학스포츠포트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사진/서다영 (대학스포츠포트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스포츠산업 잡페어 2014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스포츠산업협회와 한국경제신문에서 주관하는 '스포츠산업 잡페어 2014'가 11월 25일 서울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렸다. 올해로 개최 4회째를 맞은 이번 스포츠산업 잡페어에는 스포츠산업에 관심 있는 구직 희망자들과 스포츠 관련 전공 대학생, 그리고 일반인들까지 약 2만 명에 달하는 관람객이 몰려 성황을 이루었다. 또한 스포츠산업 홍보관부터 해외 취업 상담관에 이르기까지 11개 분야의 부스가 설치되어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나아가 홍보에만 그치지 않고 각 분야 스포츠산업 종사자들의 강연, 자기 PR 경연대회까지 흥미로운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눈길을 끌었다. 당장 구직을 원하는 사람보다는 한 곳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관람객의 비중이 높았고 특히 전국 각지에서 단체 관람을 온 대학생들이 눈에 띄었다.



'제 4회 스포츠산업 잡페어 2014'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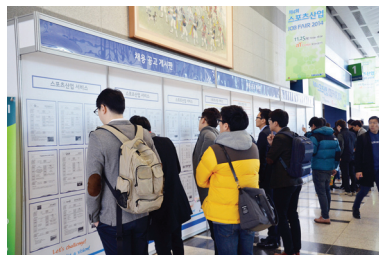
전시장에는 11개 분야의 다양한 스포츠산업 홍보관들이 자리했다. 스포츠 미디어·시설관, 스포츠 아웃도어관, 스포츠 융복합관, 스포츠 협회·단체관

전시장 입구에서는 책자와 안내문, 기념품 등을 배부하였다.



이 날 행사에서는 구직자, 전공자, 일반 학생 등의 관람객들의 입맛에 맞춘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부스에서 정보를 얻었다. 관람객 대다수는 대학생들이 주를 이뤘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핫했던 '서울 이랜드 FC'와 '한국프로축구연맹' 부스의 모습. 더불어 대한축구협회와 FC서울, 넥센 히어로즈,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 등의 프로스포츠팀의 부스에도 많은 관람객이 몰렸다.

글·사진/김유미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대학농구동아리 U리그

2014년 9월, 대학생스포츠 활동의 활성화를 목표로 '대학농구동아리 U리그'가 시작되었다. 동부, 서부, 남부, 북부 4권역으로 나뉘어져 치러진 리그전에 총 38개 팀이 출전하였고, 각 권역리그 상위 4개 팀이 최강전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12월 7일, 대학농구동아리 최강자를 결정 짓는 결승전에서 연세대학교 볼케이노가 승리하면서 3개월 간의 치열했던 경쟁이 마무리 되었다.

4강전 ZOO VS 스타트



스타트 문경인이 ZOO의 수비를 뚫고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ZOO의 박진혁이 주윤혁에게 엔트리 패스를 집어넣고 있다.



ZOO의 주윤혁이 뛰어난 위치선정으로 리바운드를 잡고 있다.



역전승을 일궈낸 ZOO의 선수들이 몸을 부딪치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볼케이노 임승진이 리바운드를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쿠바 유준우가 임재홍을 앞에 두고 슛샷을 시도하고 있다.



쿠바는 볼케이노의 주특점원 윤지석을 막기 위해 더블팀 수비로 대항했다.

4강전 볼케이노 VS 쿠바



치열한 리바운드 싸움의 승자는 쿠바 박희철이었다.

대학농구동아리 U리그

결승전
볼케이노 (연세대)
VS
ZOO (고려대)



설상가상으로 박진혁의 속공도 김재홍에 막혀 통하지 않았다.



볼케이노의 윤지석은 이날 파워 넘치는 플레이로 35점을 쏟아냈다.



볼케이노의 김재홍과 ZOO의 주윤혁이 점프볼 상황에서 볼을 다투고 있다.



볼케이노의 정화웅은 정확한 3점슛을 자랑하며 32점을 기록했다.



경기 초반 박진혁을 앞세운 ZOO가 큰 점수차로 앞서나갔다.



앞서나갔던 ZOO는 주윤혁의 부상으로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볼케이노의 문찬규이 속공득점을 성공하고 있다.



우승팀 시상에서 팀이 호명되자 환호하는 볼케이노 선수들



우승트로피의 주인공 볼케이노!

● 폐막식 시상식



본선 3위를 달성한 스타트



북부지구 우승팀이자 본선 3위팀 쿠바



준우승과 동부지구 우승을 일군 ZOO



우승의 기쁨이 단체 사진에서도 묻어나는 볼케이노

2015 K리그 신인선수선발 드래프트



2015 신인선수선발 드래프트

일시 | 2014.12.9 (화) 14:00

장소 | 서울월드컵 경기장 리셉션홀

주최 | (사)한국프로축구연맹



12월 9일(화) 서울월드컵경기장 리셉션홀에서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주최한 '2015 K리그 신인선수선발 드래프트'가 K리그 클래식·챌린지 총 21개 구단(군경팀 제외)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지원자 526명(지명철회 14명 제외) 중 우선지명선수 25명과 신규창단구단인 서울 이랜드 FC에 우선지명된 11명을 포함하여 총 84명이 프로진출 기회(자유선발선수 제외)를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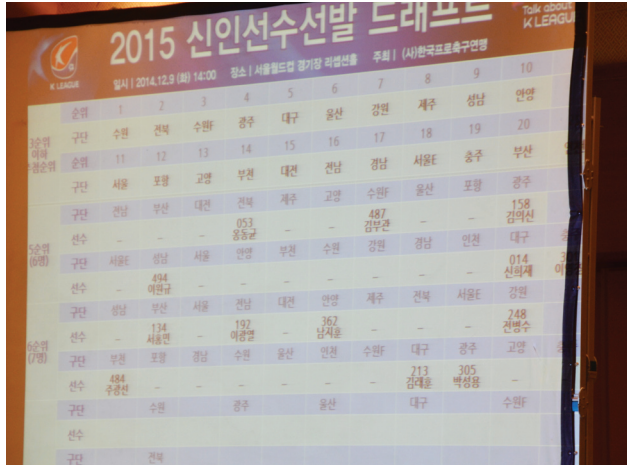
드래프트 지명 순서는 클래식 구단이 1라운드, 챌린지 구단이 2라운드에서 지명하고, 3라운드부터는 클래식, 챌린지 혼합 추첨에 의해 정해진 순서대로 지명했다. 올해 드래프트의 전체 1순위의 영광은 광주FC의 지명을 받은 아주대 허재녕에게 돌아갔다. 성남, 제주, 전북, 포항, 수원, 울산, 인천, 전남, 부산, 대전, 서울 등이 차례대로 지명을 포기하면서 12번째

지명권을 가진 광주가 허재녕을 선택했다. 허재녕은 181cm, 73kg의 체격 조건을 지닌 미드필더로 지난해 아주대가 카페 베네 U리그 권역 우승을 차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2라운드 첫 주자로 나선 서울 이랜드 FC는 관동대의 오규빈에게 1순위 지명권을 사용했다. 경남, 강원, 충주, 고양, 수원 FC, 부천은 지명을 포기했고 대구는 연세대 주장 김현수를 선택했다. 이 밖에도 3라운드에서는 인천이 인천대 윤주열을, 성남은 명지대의 문창현, 울산은 울산대의 유창균, 광주는 동신대의 주현우를 각각 뽑았다.

드래프트를 통한 선수선발은 올해가 마지막이었다. 프로 축구 K리그는 내년부터 완전 자유계약형태로 신인선수를 선발하기로 결정하며 점진적으로 자유계약선발 선수의 수를 늘려왔다. 드래프트 이전에 자유계약 또는 우선지명으로 확보한 선수들이 늘어난 만큼 이번 드래프트 현장에는 찬바람이 뽀뽀 불며 싸늘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 자유선발선수를 뽑지 않았



2015 신인선수선발 드래프트

일시 | 2014.12.9 (월) 14:00 장소 | 서울월드컵 경기장 제정선출 주최 | (사)한국프로축구연맹

순위 1 2 3 4 5 6 7 8 9 10

구단 1 수원 2 전북 3 수원 4 대구 5 울산 6 강원 7 제주 8 성남 9 안양 10

선수 11 수원 12 전북 13 수원 14 대구 15 울산 16 강원 17 제주 18 성남 19 안양 20

구단 21 서울 22 포항 23 고양 24 부산 25 대전 26 전남 27 경남 28 서울E 29 광주 30 부산

선수 31 서울 32 포항 33 고양 34 부산 35 대전 36 전남 37 경남 38 서울E 39 광주 40 부산

구단 41 서울 42 부산 43 서울 44 안양 45 수원 46 강원 47 울산 48 포항 49 광주 50 부산

선수 51 서울 52 부산 53 서울 54 안양 55 수원 56 강원 57 울산 58 포항 59 광주 60 부산

구단 61 서울 62 부산 63 서울 64 안양 65 수원 66 강원 67 울산 68 포항 69 광주 70 부산

선수 71 서울 72 부산 73 서울 74 안양 75 수원 76 강원 77 울산 78 포항 79 광주 80 부산

구단 81 서울 82 부산 83 서울 84 안양 85 수원 86 강원 87 울산 88 포항 89 광주 90 부산

선수 91 서울 92 부산 93 서울 94 안양 95 수원 96 강원 97 울산 98 포항 99 광주 100 부산

거나 선발인원 3명을 채우지 않은 구단은 12월 9일부터 2015년 3월 2일 선수 등록 마감일까지 드래프트에 미지명 된 선수를 포함, 신인 선수를 구단별 총 3명까지 자유계약은 물론 추가 지명이 유효하기 때문이다.

드래프트에서 지명받은 선수를 포함해 우선지명, 자유선발 선수 등 2015년도 K리그 신인선수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리는 '2015 K리그 신인 선수 교육'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 2015 드래프트 명단

	성남	제주	전북	포항	수원	울산	인천	전남	부산	대전
1순위										
2순위										
3순위	문창현 (명지대)					유창균 (울산대)	윤주열 (인천대)			
4순위					함석민					
5순위	이원규 (인천대)		용동균 (전국대)							
6순위								이광열 (연세대)	서홍민 (한양대)	
변외지명	이승민	김태호 (중앙대)	고민국 (명지대) 이원우			임성국 (충청대) 정지훈 (동국대) 손세범 (용인대) 전인환 (예원예술대)		서민환 (동신대)	이주용 (홍익대)	

	서울	광주	안양	서울 이랜드	경남	강원	충주	고양	수원FC	대구	부산
1순위		허재녕 (아주대)									
2순위				오규빈 (관동대)						김현수 (연세대)	
3순위		주현우 (동신대)									
4순위		김성현									
5순위		김익신 (호원대)					이영창 (홍익대)		김부관	심희재 (선문대)	
6순위		박성용 (호남대)	남지훈 (수원대)			전병수 (동국대)		박태형 (단국대)	정기운 (광운대)	김대훈 (명지대)	주광선
변외지명	유로몬 (윙스케 이자이 대)		최동혁 (우석대)			이동재 김이석 (한라대)	황수남 (관동대) 정해승 (동국대) 노재승 심진의 (선문대) 임진태 (경희대)		김현태 (용인대) 김민철 (경기대)		이기현 (동국대) 심현준 (세종대) 김영남

◇ 2015년 K리그 신인자유선발선수 (대학 선수)

포항	오창현(21 · MF · 단국대)	최호주(22 · FW · 단국대)	
울산	안현범(19 · FW · 동국대)	이영재(20 · MF · 용인대)	김승준(20 · FW · 숭실대)
수원	장현수(21 · MF · 용인대)	한성규(21 · MF · 광운대)	전현욱(22 · MF · 전주대)
부산	김종혁(20 · DF · 영남대)	이규성(20 · MF · 홍익대)	
성남	성봉재(21 · FW · 동국대)	이태희(22 · DF · 숭실대)	
전남	정재혁(20 · MF · 홍익대)	이지민(21 · DF · 아주대)	안수현(22 · FW · 조선대)
경남	최봉진(22 · GK · 중앙대)	정현철(21 · MF · 동국대)	김영욱(20 · FW · 한양대)
광주	박선홍(21 · MF · 전주대)	류범희(23 · DF · 광주대)	송성범(22 · DF · 호원대)
대전	서명식(22 · DF · 관동대)		
대구	김진혁(21 · FW · 숭실대)	류재문(21 · MF · 영남대)	
서울 이랜드 FC	양기훈(22 · DF · 성균관대)	김창욱(21 · MF · 동의대)	
수원FC	이인수(20 · GK · 선문대)	배신영(22 · MF · 단국대)	

글/김범기(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사진/김유미(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신한은행 2014 농구대잔치 소식

신한은행 2014 농구대잔치가 11월 27일에서 12월 5일까지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농구대잔치는 남자부 7팀, 남자2부 4팀, 여자부 4팀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그중 남자부는 대학 6개 팀과 상무를 합쳐 7팀이 참가했다. 건국대가 불참하고 연세대가 대학농구리그 이후 참가를 결정한 점이 눈에 띄었다. 상무가 여전히 유력한 우승후보로 예상됐던 가운데, 대학팀들이 농구대잔치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살펴보자.

경희대, 상무에 밀려 준우승에 그쳐... 고려대 · 연세대 4강

남자부는 A조와 B조, 두 조로 나뉘어 조별로 상위 2개 팀이 준결승에 진출하는 방식이었다. A조에는 연세대와 동국대, 상명대, 경희대가 편성되었다. A조는 경희대가 단연 돋보였다. 경희대는 예선 첫 경기 상명대를 상대로 32점 차 대승을 거둔 뒤 난적 연세대와의 경기도 난타전 끝에 승리했다. 이후 경희대는 동국대도 무리 없이 넘고 3연승으로 1위를 확정 지었다. 연세대는 2승 1패로 그 뒤를 이었다. 경희대에게 패배를 당한 연세대는 상명대와 어려운 경기를 펼쳤다. 연세대와 상명대의 점수 차는 3쿼터까지



연세대 허훈

불과 4점 차였다. 하지만 해결사로 나선 허훈(181cm, G)의 활약으로 천신만고 끝에 준결승 티켓을 손에 넣었다. 상명대는 동국대와 접전 끝에 패배한 데 이어 연세대도 끝까지 괴롭혔지만 승리를 거두진 못했다. 상명대는 3패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B조는 상무와 고려대, 조선대로 조가 짜여졌다. 결과가 너무나 쉽게 예상되는 조였다. 상무와 고려대는 조선대에 비해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 관건은 누가 1위를 차지하는가였다. 예선 첫 경기에 고려대와 상무가 격돌했다. 이 경기로 1위가 결정되는 거나 다름없었다. 두 팀의 승부는 상무의 여유 있는 25점 차 승리로 끝났다. B조는 이번 없이 상무와 고려대가 각각 1, 2위를 결정지었다.

준결승은 상무와 연세대, 경희대와 고려대의 대진이 완성되었다. 연세대와 상무는 지난해 농구대잔치 결승전에서도 맞붙었던. 이번 준결승에서 상무는 최진수(202cm, F)와 이정현(191cm, G)을 앞세워 연세대를 81-54로 완파했다. 이제 사람들의 이목은 경희대와 고려대의 대결로 쏠렸다. 경희대는 고려대를 78-68로 따돌리고 결승에 안착했다. 이종현 없는 골 밑에 김철욱(204cm, C)의 적수는 없었다. 김철욱은 22점 11리바운드로 고려대 격파의 1등 공신이 되었다. 지난 2014 MBC배 결승전에서 고려대에 아깝게 패한 한을 확실히 풀었다. 고려대는 이중



준우승 경희대 기념사진

현(농구 연수)과 문성곤(재활)이 없는 상태에서 18-38의 리바운드의 열세가 패배로 직결됐다. 드디어 대망의 결승전. 상무는 강했다. 상무는 26점을 폭발한 최진수를 필두로 4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91-71로 경희대를 꺾었다. 농구대잔치 8회 우승의 금자탑을 쌓으면서 7회의 기아자동차를 뛰어넘어 농구대잔치 역대 최다 우승팀으로 등극하는 순간이었다. 경희대는 1997~1998 농구대잔치 이후 16년 만에 결승전에 오르는 패가를 이뤘다. 경희대는 어렵게 얻은 우승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상무를 끈질기게 붙잡았다. 하지만 4쿼터에 김철욱이 5반칙 퇴장당하며 급격히 무너지고 말았다. 결국 경희대는 기량과 경험에서 한 수 앞선 상무의 높은 벽을 실감하며 준우승에 그쳤다.

한편, 남자 2부는 초당대가 MBC배에 이어 2관왕을 차지했다. 여자부는 용인대와 극동대가 실업팀인 김천시청과 사천시청에 밀려 나란히 공동 3위로 농구대잔치를 마쳤다.

새 판짜기 돌입... 수확을 거둔 팀은?

농구대잔치는 대학팀들이 동계훈련에 돌입하기 직전인 시기에 개최되었다. 때문에 몇몇 대학팀들은 농구대잔치를 내년을 위한 새 판짜기에 활용하는 기회로 삼았다. 이때까지 졸업을 앞둔 4학년 선수들을 대신해 저학년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뽐내기도 했다. 또한 각 팀의 예비신입생들이 첫선을 보이는 자리였다. 준우승팀 경희대는 3학년 3인방 김철욱 · 최창진(183cm, G) · 한희원(195cm, F)이 더욱 농익은 경기력을 자랑했다. 프로로 진출한 배수용(193cm, F) · 한성원(180cm, G)의 빈자리는 최승욱(192cm, F)과 성



결승전 상무 경희대 점프볼

건주(189cm, G)가 메웠다. 성건주는 고려대와의 준결승에서 18점으로 깜짝 활약을 선보이기도 했다. 연세대는 무려 5명의 선수가 프로로 진출했고 팀의 에이스 최준용(202cm, F)은 부상으로 대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대회참가팀 중 전력 가장 약화된 팀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연세대는 성적보다 확 바뀐 팀의 조직력을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뒀다. 허훈은 충분한 출전 시간을 보장받으면서 대회 평균 15.5점의 득점력으로 내년의 활약을 기대케 했다. 김준일의 공백은 박인태(203cm, C)와 김진용(201cm, F)이 번갈아 맡았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농구대잔치에서 발전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상명대의 남영길(188cm, F)과 동국대의 김승준(192cm, F)도 각각 이현석(190cm, G)과 김영훈(190cm, F)의 공백을 메울 적임자로 낙점받았다.

예비신입생들도 농구대잔치에서 데뷔 무대를 가졌다. 고려대의 장태빈(184cm, G)과 전현우(195cm, F), 박준영(195cm, F), 동국대의 변준형(187cm, G)과 정호상(177cm, G), 백승환(185cm, G), 연세대의 김훈(199cm, F) 등이 그 주인공이다. 그중 고교 최고 가드였던 변준형의 활약은 독보적이었다. 변준형은 경희대전에서 37분을 소화하며 21점으로 팀 내 최다득점자에 이름을 당당히 올렸다. 신입생답지 않은 득점력이었다. 장신 포워드 유망주로 평가받는 전현우도 조선대전에서 20분 만에 16점을 기록하며 문성곤(195cm, F)을 이을 후계자로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글/이규호(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명예기자)
사진/이현아(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대학배구 학생선수들의 겨울나기



, 대학배구 비시즌!

지난 8월 27일 리그 챔피언결정전을 마지막으로 전국대학배구대회의 정규 리그는 끝이 났다. 그 이후 단양에서 열린 추계대회와 11월 3일 막을 내린 제95회 전국체육대회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며 올해의 모든 대학배구 일정은 마침표를 찍었다. 비시즌인 지금, 과연 대학배구 학생선수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대학배구 비시즌!

1. 더더욱 열심히! 훈련형

시즌이 끝나도 학생선수들의 운동에 대한 열정은 결코 식지 않았다. 비시즌이기에 여유로운 훈련을 소화하고 있진 않을까 했던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더욱더 고된 훈련을 하고 있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형태 감독의 말에 의하면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 근육이 위축된 상태라 운동을 할 수 없다. 특히 체력 운동에 집중한다”며 지옥의(?) 레이스를 감행하고 있다고 한다. 명지대학교의 경우에도 마라톤부에 버금가는 러닝 훈련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 ‘나는 국가대표다’ 국제대회 차출형

대학배구 시즌은 끝났지만 국제대회가 기다리고 있었다. 대학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동근(경기대), 함형진(중부대), 김형진(홍익대), 이상욱(성균관대)은 노진수 감독이 이끄는 ‘제17회 아시아 청소년 남자배구 선수권대회(U-20)’에서 바레인을 꺾고 3위를 차지하며 값진 동메달을 일궈냈다. 이번 성과로 인해 내년 멕시코에서 열리는 ‘세계 청소년 남자배구 선수권대회’ 참가 티켓까지 확보했다. 정동근은 팀의 주장을 맡아 대학팀 형님답게 아이들을 잘 이끌어주는 후문이다.



국제대회에 참가한 학생선수들

3. 기말고사를 위해! A+를 향해! 학업형

학생선수들은 선수 이전에 대학생 신분이다. 시즌 동안 평소보다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 특히 배인호(성균관대)가 대학배구 내 공부벌레를 자처하고 나섰다. 자유주의를 주제로 한 과제를 위해 마이클 센델의 ‘정의의 무엇인가’까지 읽었다는 후문이다. 캐나다로 떠나는 전지훈련을 대비해 영어 공부에도 열중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중부대의 경우에도 ‘공부하는 배구부’라는 명성에 걸맞게 너나 할 것 없이 열심히 학업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2014학년도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선정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볼 만한 대목이다. 올해는 과연 어떤 선수가 코트 위에서뿐만 아니라 학업에서도 반짝반짝 빛날까?

4. 꿀맛 버터칩 같은 휴가형

4개월간의 리그뿐 아니라, 춘·추계 대회 등을 치른 학생선수들은 달콤한 휴식을 갖기도 했다. 꿀맛 같던 휴가 동안 미처 시즌 중에는 찾지 못했던

고향에 다녀오기도 하고 동기들끼리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특히 경기대학교의 경우 강원도 인제군에서 열린 ‘전국스포츠클럽배구대회’ 문화행사에도 참여해 일일강사로 참여하여 재능기부를 하는 뜻깊은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에 경기대 이상열 감독은 “협회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받았다. 좋은 취지라서 참여하게 됐다. 배구인으로서 선수들에게도 알찬 경험이었을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5. Variety League! 프로리그 직관형(직접관람형)

대학배구 시즌은 끝났지만 프로리그 시즌은 한창이다. 수원, 안산 등 프로리그 경기장에서 대학배구 학생선수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특히 그중에서도 박상훈(경기대)이 자주 경기장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지난여름 펼쳐진 코보컵에는 홍익대 배구부 선수들이 함께 경기장을 찾기도 했고, 인천아시안게임 당시에는 인하대 배구부 선수들이 송림체육관에 모습을 보였다. 이들이 직접 경기장에 찾는 이유는 프로배구 경기를 보며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기도 하고, 선배들의 경기를 보며 자극을 받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대원-박상훈 선수

박상훈은 “확실히 중계로 보는 것과 직접 가서 보는 것은 여러 면에서 다르다. 많은 도움이 되고 프로에 진출한 형들을 응원하러 가기도 한다. 경기가 끝난 후에도 많은 조언을 해준다.”며 “형들, 다치지 말고 시즌 잘 끝내세요! 화이팅!”이라는 애정 어린 메시지도 함께 전했다.



재능기부에 참여한 경기대 학생선수들

훈련과 학업이라는 공통분모부터 재능기부, 직관과 같은 개인 여가 시간 활용까지! 대학배구 학생선수들은 각자의 개성에 맞게 알찬 비시즌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같이 벌써 코트 위가 그리다고 전했다. 천생 선수들이다. 추운 겨울마저 녹여버리는 이들의 열정이 있기에 다가올 시즌이 더욱이 기대되는 것이 아닐까?

글 / 김선우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명예기자)

사진출처/ 대한배구협회, 박상훈 선수 SNS 계정

2014 야구대제전 대학 선수 활약상

- 고교 유니폼을 입은 대학 선수들



12월 5일부터 13일까지 마산야구장에서 펼쳐졌던 2014 야구대제전이 막을 내렸다. 올해는 특별히 1회전을 라이벌 고교 간의 맞대결로 대진을 구성해 팬들의 향수를 자극하고, 한층 더 치열한 승부와 다양한 볼거리로 재미를 더했다. 오랜만에 고교 유니폼을 입은 대학 선수들. 과연 어떤 선수들이 활약을 펼쳤었는지 되돌아보자.

광주일고 우승, 모두가 MVP

광주일고는 지난 대회 1회전 탈락을 설욕하기 위해 프로 선수들이 대거 참여하며 어느 학교보다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했다. 프로·은퇴 선수들과 고교·대학 선수들이 하나로 뭉친 결과, 올해 야구대제전 우승을 이뤄낼 수 있었다. 화려했던 라인업만큼이나 빛났던 광주일고의 팀워크. 그 한 축은 대학 선수들이 담당했다.

우선 타선에는 성균관대 듀오 이호연-정경운이 돋보였다. 이호연(1학년)은 내·외야를 가리지 않고 5경기 모두 출장해 17타수 7안타를 기록하며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정경운(3학년)은 주로 유격수로 나서 6할에 육박하는 출루율을 기록했다. 동강대 최근태(2학년)는 대회 후반 준결승, 결승에 매서운 타격감을 뽐냈으며 준결승전에서는 홈런을 기록하기도 했다.

투수진에서는 재학생 김현준이 큰 주목을 받았는데, 그 뒤에는 문지훈-서소망의 역할이 컸다. 고려대 문지훈(1학년)은 김현준과 번갈아가며 선발로 나서 3경기 90이닝을 소화했고, 문지훈이 내려가면 인하대 서소망(2학년)이 그 뒤를 이어 호



광주일고 대표로 야구대제전에 출전한 성균관대학교 이호연

투를 펼쳤고, 단 1실점만을 허용하며 2승을 거뒀다.

성남고-경북고-취문고, 물고 물리는 대학 선수들의 활약

성남고의 첫 경기, 홍익대 허승혁(4학년)과 동아대 오동준(1학년)의 활약이 빛났다. 각각 중심타선과 하위타선에서 각각



성남고 대표로 야구대제전에 출전한
홍익대학교 허승혁



경북고 대표로 야구대제전에 출전한 계명대학교 이상학



휘문고 대표로 야구대제전에 출전한
경희대학교 이정훈

2안타 2볼넷, 3안타 1볼넷으로 100% 출루하며 많은 득점을 올렸다. 경북고와의 16강에서는 전체적인 타선의 부진으로 경기에서 패했지만 허승혁은 볼넷 3개를 얻어내며 전 타석 출루 기록을 세웠다. 경북고에서는 동갑내기 동아대 권현규(4학년)와 계명대 이상학(4학년)이 좋은 모습을 보였다. 권현규는 두 차

레 멀티 히트 경기를 펼쳤고, 이상학은 매 경기 안타와 득점을 올렸으며 투수로도 팀에 보탬이 되었다. 성남고를 꺾고 올라간 8강전, 경북고를 막은 건 휘문고 6번 타자로 출전한 경희대 이정훈(2학년)의 활약이었다. 이 경기에서 이정훈은 동점 타점과 역전 득점을 올리며 팀의 4강행을 이끌었다.

BONUS CLIP

타격에 소질이 있나요? 세계사이버대 김한



2014 야구대제전 첫 경기였던 세광고와 인천고의 경기, 세계사이버대 투수 김한(1학년)은 인천고 8번 타자 1루수로 나섰다. 오랜만에 타자로 나서며 수비에서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타석에서는 2개의 삼진만을 기록하고 있었다. 하지만 5회 말 1사 1, 2루 동점 상황 김한은 펜스를 맞히는 2타점 결승 2루타를 쳐냈고 팀은 그대로 승리하며 이날 경기의 주인공이 되었다.

빠른 발로 고군분투, 고려대 이준형



고려대 이준형(3학년)은 대구고 1번 타자로 나서 6번 타석 중 5번 출루, 여기에 4번의 도루를 성공시키며 톱타자로서 만점 활약을 펼쳤다. 1회전 광주진흥고와의 경기에서는 볼넷과 연속 도루 이후 수비 실책에 홈을 밟아 선취점을 올리는 등 도루 3개를 기록하며 빠른 발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어진 군산상고와의 경기, 이준형은 팀의 3안타 중 2안타를 홀로 때려내며 고군분투했지만 홈으로 불러들여 주는 이가 없었고 결국 팀은 영봉패를 당하고 말았다.



기획의도
페이스메이커란
마라톤에서
기준속도를 만드는
선수를 일컫는
말인데요, 앞으로
대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춤 바람? 사교댄스? NO! ‘댄스SPORTS’의 매력



춤바람

“어릴 적부터 댄스스포츠를 접했어요. 아버지가 댄스스포츠 선수였고, 연습실을 운영하셨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댄스스포츠에 뛰어들어 학창시절을 보내게 되었어요. 반항하고 싶을 때도 많았죠. 반항의 결과로 대학은 컴퓨터공학과를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춤을 취하겠더라고요. 계속 댄스스포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한국프로댄스평의회 사무총장 이세영

‘춤’을 취아하는 사람은 몸속에서 꿈틀대는 끼를 어느 정도 타고난다. 이것을 증명하는 사례가 있다. 학교에서 문제아로 여겨지던 학생이 댄스스포츠 연습실에 들어왔다. 부모님이 학생을 데리고 온 것이었다. 어떻게 통제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부모님에게 ‘댄스스포츠’는 마지막 희망과도 같았다. 이 학생과 댄스스포츠와의 만남은 기적이었다. 중1 때 댄스스포츠를 시작하여 중3이 됐을 때, 실력은 이미 토레를 뛰어넘었다. 학교생활도 안정됐다. 그동안 분출하지 못했던 끼가 춤을 통해 발산되자 모든 것이 평온해졌다.



청소년기를 넘어 대학생이 되어도 마찬가지다. 별것도 아닌 일에 화가 나거나, 반대로 감정표현에 너무 서툴다면 음악과 함께 교감하며 추는 댄스스포츠가 특효약이 될 수 있다. 에너지를 쏟아 낼 무언가가 필요하다면 댄스스포츠가 답이다. 다 함께 차차차!

커플에게 추천! 커플이 아니어도 추천!

대학에 종종 댄스스포츠 강의를 있는데, 인기가 굉장히 많은 편이다. 수업을 들으러 가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은 경우가 허다하다. 댄스스포츠 선수의 경우 남자보다 여자선수의 비율이 훨씬 커 문제라는데 아이러니하다. 댄스스포츠의 매력이 흥겨운 음악에 맞춰서 골반을 흔드는 춤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묘한 기류'가 댄스스포츠의 매력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댄스스포츠가 만들어질 때 남녀 간의 사랑, 이별을 주제로 춤이 창작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업시간은 '공인된 미팅'이 되곤 한다. 첫 만남에 손과 허리를 잡고 춤을 춰야하는 댄스스포츠, 그렇기 때문에 프로선수가 될 수 있는 조건에 '19세 이상'이 붙는 국가도 있다.

흥이 넘치는 대한민국



댄스스포츠 수업을 1주일에 한 번씩 공동수강하고 있는 대학생 동아리연합 KUDU(Korean Universities Dance-Sports United)는 춤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이 취미활동으로 댄스스포츠를 하기 위해 모인 동아리다. 수업은 간단한 스텝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해서 배운 스텝에 손동작을 붙이며 '춤'이라 칭할 만한 결과물을 만들어간다. 그리고 한 시간 반 정도 진행된 수업이 끝날 무렵, 학생들은 빠른 자이브 음악에 맞춰 멋진 춤을 완성한다.

“도대체 이런 흥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했던 거야?” 수업을 하는 동안 선생님의 칭찬이 줄을 잇는다. 보통 프로선수를 지향하거나, 댄스스포츠를 전공하는 선수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보기에다 곧 잘 따라하는 학생들이 신기한가 보다.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흥으로 유명한 대륙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흥' 하면 빠지지 않는다. 하나의 예로 사물놀이는 정신을 쏙 빼놓을 정도로 강하고, 경쾌한 리듬의 연속이다. 우리나라 고유의 리듬인 자진모리는 삼바나 차차차와 비슷하고, 가장 빠른 리듬인 휘모리장단은 자이브와 비슷하다. 표현의 방식이 어깨춤과 엉덩이춤으로 다를 뿐. 한국인의 유전자에 '춤의 즐거움'이 내재되어있는 건 확실하다. 춤을 계속하여 즐겨왔던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어색하던 상관없다. 무언가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싶고, 즐겁게 건강관리 하고 싶다면 올 겨울 댄스스포츠에 도전해보자.

INFORMATION

합정역 댄스스튜디오

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92-3 지하1층



와이트리 댄스스쿨

위치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125,
영보빌딩 5층
문의전화 : 02-338-3300

라틴인

위치 : 역삼동 751-14 지하1층
네이버카페 주소 : <http://cafe.naver.com/latinin>

대중가요 사용 불가?

룸바, 자이브, 차차차 등 댄스스포츠를 추기 위한 음악을 선정하는 기준은 음악의 빠르기다. 보통 1분을 차지하는 마디 수로 음악을 결정한다. 우리나라 음악은 여기에 들어맞는 경우가 많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 열린 한 대회에서 사이의 '강남스타일'이 울려 퍼졌다. 참가자들이 직접 편곡을 하여 댄스스포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편곡을 하는 열정까지!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한류바람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우리도 뚝다! 대학농구동아리 U리그

지난 12월 7일, 대학농구동아리 U리그의 4강전과 결승전이 치러지며 7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각 지구 우승은 동부지구 고려대학교 ZOO, 서부지구 연세대학교 볼케이노, 남부지구 수원대학교 콘돌, 북부지구 국민대학교 쿠바가 차지했으며 볼케이노와 ZOO 간의 동아리 연고전으로 관심을 모았던 챔피언결정전은 볼케이노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이외에도 결승전에서 빼어난 활약을 보인 볼케이노의 정화용이 MVP로 선정되어 볼케이노는 지구 우승—챔피언결정전 우승—MVP 배출을 모두 이룩하는 쾌거를 올렸다.

동부지구

하루 세 경기도 거뜬히 8연승으로 우승 자축

고려대학교 ZOO가 하루 3경기가 있는 다소 힘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세 경기 모두 승리로 이끌며 8연승, 축포를 쏘아 올렸다. ZOO와 선두대결을 펼치던 한국체육대학교 칸스는 10주차에 서울대학교 새턴에 열미를 잡히며 2위에 만족해야 했다. 한편 동부리구는 4위를 향한 싸움이 치열했다. 4위가 간절했던 중앙대학교 청룡과 숭실대학교 TIB 모두 이날 ZOO와 경기가 있었는데 두 팀 모두 이길 경우 청룡이 진출, 한 팀만 이길 경우 이긴 팀이 진출, 두 팀 모두 질 경우 TIB이 진출하는 다소 복잡한 상황에 있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ZOO가 이날 3경기를 모두 잡으며 마지막 한자리는 TIB의 차지가 되었다.

서부지구

마지막 경기에 펼쳐진 기적 같은 서부극장

연세대학교 볼케이노와 성결대학교 프레스 두 팀 모두 10주차까지 8승 1패를 기록하며 동물, 11주차 경기에서 두 팀 모두 이길 경우 맞대결에서 이긴 프레스가 승자승 원칙에 따라 1위가 되는 상황이었다. 먼저 볼케이노가 승리하며 9승의 고지를 밟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러진 프레스와 인천대학교 스타트의 경기. 프레스가 3쿼터까지 리드하며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다. 경기 후반 들어 좋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스타트가 종료 22초를 앞두고 역전에 성공한 것. 결국 프레스는 재역전하지 못했고, 볼케이노는 어부지리로 서부리구 1위에 올라섰다.



남부지구

전승가도 (全勝街道)

다른 곳보다 참가대학교의 수가 적었던 탓일까. 한 번씩은 이번이 일어났던 다른 지구와는 달리 비교적 순탄한 양상을 보였다. 10주차에 이미 수원대학교 콘돌이 전승 우승을 이룩했고 명지대학교 돌핀스와 연세대학교 공오친까지 플레이오프의 진출을 확정했다. 이러한 가운데 열린 11주차 경기, 단국대학교 피닉스는 예상 외로 공오친을 꺾으며 강남대학교 스냅이 가천대학교 아틀라스를 정확히 6점차로 이길 경우 불사조의 부활처럼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었지만, 아틀라스가 스냅을 꺾으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북부지구

1위를 건 맞대결

1위를 건 국민대학교 쿠바와 고려대학교 서우회의 맞대결을 남겨두며 큰 관심을 끌었던 북부지구. 뿐만 아니라 1~4위까지 순위가 1주차 결과에 따라 완전히 뒤집힐 수 있었던지라 모든 팀이 죽기 살기로 경기에 임했다. 1쿼터까지 팽팽했던 경기 양상은 2쿼터부터 쿠바의 흐름으로 흘러갔고, 서우회는 한 번 틀어진 흐름을 다시 잡지 못하였다. 한편, 이날 서우회가 쿠바에 지고 국민대학교 탭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스파바가 각각 1승을 추가하며 세 팀이 7승 2패로 동률을 기록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FIBA룰에 의거, 탭이 2위, 서우회가 3위, 스파바가 4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되었다.

플레이오프 - 이틀간 치러진 강행군, 승자는 볼케이노

6일과 7일 양일간 치러진 플레이오프는 이틀간 최대 4개 경기를 치러야 하는 강행군이었다.

6일 치러진 16강, 8강전에선 각 지구 우승팀들이 강세를 드러냈다. 서부지구의 볼케이노, 동부지구의 ZOO, 북부지구의 쿠바가 각기 4강에 안착했다. 반면 남부지구 우승팀인 콘돌은 8강전에서 서부 3위를 차지했던 스타트에 발목이 잡혔다. 스타트는 지구에서의 막판 상승세를 플레이오프까지 이어가며 4강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

7일에는 4강전과 결승전이 치러졌다. 4강 첫 경기였던 볼케이노와 쿠바의 경기는 볼케이노가 낙승하며 먼저 결승에 안착했다. 쿠바가 몸이 덜 풀린 모습을 보이며 우왕좌왕했던 반면 볼케이노는 홈그라운드(?) 이점을 살리며 차곡차곡 점수를 벌려나갔고, 점수 차는 4쿼터 한때 30점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반면 이어진 ZOO와 스타트의 경기는 끝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접전이었다. 1쿼터를 동점으로 마쳤고 매 쿼터 역전에 재역전을 거듭했다. 경기의 행방이 정해진 것도 불과 30초를 남기고일 정도. ZOO에 레이업을 내주며 2점 뒤진 스타트는 급한 나머지 결정적 실책을 범하며 승기를 내주고 말았다.

대망의 결승전은 백중세였다. 초반에 ZOO가 연속된 공격으로 점수를 벌렸지만 볼케이노 역시 곧바로 따라 잡았고, 2쿼터부터는 리드를 이어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MVP에 선정된 정화용이 있었다. 정화용의 3점 슈트는 매번 림을 가르며 볼케이노가 중심을 잃고 점수 차가 좁혀질 때마다 다시 분위기를 가져오는 역할을 했다. 여기에 윤지석과 김재홍의 활약이 더해지며, 4쿼터 말미 점수 차는 20점이 넘게 벌어졌다. ZOO 역시 3쿼터까지는 대등한 게임을 풀어나갔으나 앞서 스타트와의 접전으로 체력이 방전된 탓일까, 4쿼터 들어 공격의 마무리가 약해지며 연거푸 득점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인 점이 아쉬웠다.

이로써 제1회 대학농구동아리 U리그는 막을 내렸다. 아무래도 처음 치러지는 대회다 보니 학교 측의 사정으로 사전협의 없이 경기가 취소되는 등 운영 측면에서도 아쉬운 점이 있었고 연이은 경기 불참 같은 참가팀들의 문제도 존재했다. 특히 경기 불참에 있어서, 아무래도 경기장과 연고가 먼 대학의 경우 선수들을 모으는 데 있어 애로사항이 있었던 점은 이해하지만 경기장을 찾았던 상대팀에 대한 심각한 결례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래도 참가했던 많은 선수들이 즐거운 대회였고, 많은 팀들과 겨룰 수 있어 행복했다는 평을 내리며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독려하겠다는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KUSF)의 의도는 가시적인 성공을 거뒀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대학농구동아리 U리그는 내년부터는 전반기에 대학별로 대표선출을 거쳐 후반기에 리그가 진행되는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그만큼 더 실력 있는 팀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칠 것이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남게 되지 않을까. 앞으로도 이어질 대학농구동아리 U리그가 대학스포츠계의 든든한 밑뿌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글/권오준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학생선수들이 바라본 대학스포츠리그



오창현 (단국대, 축구 선수)



이준희 (인천대, 축구 선수)



황중호 (경남과학기술대, 배구 선수)



한상혁 (한양대, 농구 선수)

지난 11월호와 12월호에서 본지는 각각, 대학리그 서포터즈와 학내 스포츠매거진 편집장들의 입을 통해 2014 대학리그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번 호에서는 대학리그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준비했다.

현재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대학리그는 총 3종목. 축구와 배구, 그리고 농구다. 올해의 리그를 조명해보기 위해 3종목의 선수 4명이 모였다. 오창현 (단국대, 축구/이하 오)선수와 이준희 (인천대, 축구/이하 이)선수, 황중호 (경남과학기술대, 배구/이하 황)선수, 그리고 한상혁 (한양대, 농구/이하 한)선수. 이 세 종목의 선수들이, 직접 피부로 느낀 올해의 대학리그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대학리그에서 그라운드를, 코트를 힘차게 누빈 선수들은, 리그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어떻게 내릴지 궁금했다.

이 저희 팀(인천대)은 올해 조 편성이 나왔을 때부터 '죽음의 조'라고 해서, 저희 팀뿐만 아니라 저희 권역(4권역 : 인천대, 고려대, 동국대, 아주대, 경희대, 연세대, 명지대, 제주국제대)이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특정 팀이 강하다거나 약하다는 느낌 없이, 리그 전반적인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는 걸 체감할 때가 많았죠.

황 저희(경남 과기대) 같은 경우는 사실 조

금 힘든 한 해였어요. 전반적으로는 지난 시즌과 비슷했지만 여러 가지로 경기 일정에 차질이 좀 생기는 바람에요. 세월호 사고로 경기가 연기되어서, 리그 후반에는 휴식이 없이 바로바로 시합해야 했거든요. 아무래도 선수층이 얇은 저희 팀으로서는 그런 부분이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었죠.

한 저는 이번 리그에서 서포터즈 제도가 도입된 게 정말 좋았어요. 사람들도 경기장에 많이 찾아오고, 경기 분위기도 훨씬 좋았고요. 그래서 올해 리그가 작년보다는 훨씬 좋지 않나 생각해요.

한상혁 선수의 말처럼 올해는 여러모로

다양한 시도를 했던 한 해였다. 농구와 배구 리그에서의 서포터즈제 도입은 단연코 그 첫손가락에 꼽을 만한 시도였다. 리그에서 직접 함성을 들으며 뛰었던 선수들은 '서포터즈제 도입'이라는 새로운 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정말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서포터즈가 있음으로써 응원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됐고, 경기 홍보도 잘 해주면서 관심이 훨씬 많아졌어요. 선수 입장에서는 관심이 많으면 당연히 더 신이 나고, 더 좋은 경기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죠.

이 축구는 아직 서포터즈제가 도입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정말 선수 입장에서는 관중이 있으면 의식을 하게 돼요. 물론 좋은 쪽으로요. 그래서 관중이 많으면 더 재미있는 경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조금 벅찰지는 몰라도, 축구도 서포터즈제를 도입하는 게 리그 진작이나, 경기력 면에서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오 제 생각도 같아요. 축구리그에도 서포터즈가 생겨서 이벤트나 행사 같은 것을 체계적으로 하게 된다면 관중 수가 많아질 것 같아요.

황 글썄요, 저희 학교는 배구리그에 참여했어도 서포터즈가 창단되지 않아서 자세한 느낌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경기할 때, 저희랑 달리 상대팀은 서포터즈가 응원해주고, 뒤에서 받쳐주고 하나까 그런 모습이 많이 부럽긴 하더라고요.

서포터즈가 있는 학교건, 없는 학교건 서포터즈의 유무가 경기장을 찾는 관중 수와 직결되고, 관중 수의 많고 적음이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는 3종목의 선수들. 다음으로 이들에게 '홈&어웨이' 제도에 대해서 물었다.

오 홈&어웨이 제도가 좋다고 생각해요. 리그제로 가다 보니까 일주일마다 긴장과 설렘도 있고요. 한 주 경기를 바라보면서 일주일 동안 시합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이 저도 (홈&어웨이 제도가) 좋다고 생각해요. 홈이라는 자기 팀만의 경기장에서 뛰는 건,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천대가) 죽음의 조에 편성이 돼서 재미도 있었고, 많은 분이 홈 경기장을 찾아 주신 점도 좋았어요. 그리고 축구 같은 경우에는, 각 권역에 속한 팀들이 챔피언십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타 종목과는 또 다른, 색다른 재미인 것 같고요.

황 저도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홈&어웨이 제도가) 마치 프로에서 시즌을 경험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프로에서 취하는 시스템을 미리 대학에서 경험하고 간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한 좋아요. 홈&어웨이 제도는 무조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학교 학생들도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농구를 모르던 학생들도 한 번씩 구경하면서 농구에 흥미를 가지게 될 테니까요. 만약 홈&어웨이를 하지 않으면, 경기장에는 팬이 더 이상 늘지 않고 부모님, 농구 관계자들, 매번 경기장을 찾아주시는 팬들만 똑같이 오실 거예요.

이렇듯 대학리그가 여타 다른 대회와 차별성을 두는 또 다른 부분이 바로 이 홈&어웨이 제도다. 축구는 2008년, 농구는 2009년, 배구는 2010년 리그를 출범하면서 홈&어웨이 시스템은 대학리그를 지탱하는 가장 큰 기반이 됐다.

대학리그가 굳이 홈&어웨이 제도를 채택한 이유는 뭘까. 중·고등학교의 대회 시스템은 단기간의 성과를 내야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때문에 대회 기간에는 학업은 등한시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었다. 이렇게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한 학생선수들로 하여금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시스템'이 바로 홈&어웨이 제도였던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급작스럽게 변한 시스템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런 홈&어웨이 제도를 선수들은 얼마나 체화하고 있었을까.

황 학업과 운동을 같이 하면서 제가 가장 절실하게 느낀 건, 몸이 피로하다는 거예요. 특히 시험기간이 (경기 일정과) 겹치면 레포트에, 시험에, 시험에, 몸과 정신이 같이 힘들니 정말 괴롭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학교 대표로 뛰다 보니까 체육전공수업은 별다른 지장 없이 소화할 수 있는데, 교양 강의를 들을 때는, 수업을 듣거나 학점을 받는 면에서 힘든 면이 조금 있어요.

한 오전 수업은 거의 다 참여하는데 오후 수업은 운동시간과 겹쳐서 거의 참여할 수가 없어요. 수업 진도를 잘 못 따라가니까 아무래도 과제나 시험 등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 들어갈 수 있는 수업은 최대한 들어가요. 그렇지만 운동부만 따로 수업을 듣는 것도 아니고, 축구부끼리도 수업 시간표가 각자 다르잖아요. 감독님께서 수업시간을 배려해주시는 건 좋다고 해도, 훈련할 때 누구는 참여하고 누구는 빠져있다 보니까 전원이 동시에 훈련하기가 힘든 면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훈련에 차질이 생기는 거죠. 조금 일관된 시스템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교수님께서 (선수들을) 많이 도와주고 배려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서포터즈 제도나 학업과 운동의 병행 등 대학리그 전반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준 네 선수. 마지막으로 이번 리그에

서 아쉬웠던 점은 없었는지 물었다.

이 4권역 같은 경우에는 경기 일정이 갑자기 뒤바뀌어 버리는 일이 생겨 버려서 많이 힘들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경기만 일정이 바뀐 게 아니라 여러 경기일정이 갑자기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경기력에 문제가 생겨요. 바뀐 일정을 공지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정해놓은 경기 일정에는 웬만하면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 저도 일정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축구 같은 경우는 주말 리그라고 해서 거의 금요일에 경기가 열리잖아요. 그런데 막상 금요일 정도가 되면 학교에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경기를 보러와 주시는 분들이 적은 것 같고요. 관중이 최대한 많이 올 수 있을 때 경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한 농구도 경기 일정이 조금 아쉬웠다고 생각해요. 야시안게임 때문에 경기 일정이 너무 타이트했어요. 타이트하게 짜인 경기 일정을 소화하려다 보니 부상 많이 나왔고요. 조금 여유 있게 경기일정을 짤면 좋겠어요. 그리고 플레이오프도 각 학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장 섭외가 원활하면 좋겠고요.

황 여러 스타일의 팀과 경기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된 한 해였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음 시즌부터는 기말고사 기간에만 한 주 정도 리그를 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야간 강의를 들도록 하고 있는데, 시합하고 바로 저녁에 시험이 있고, 그러다 보니 배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시험기간에만 한 주 정도라도 시합 일정에 휴식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10년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동안 쉽 없이 달려온 대학리그다. 매년 새로운 시도로 더 나은 시스템을 고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시스템을 실제로 체감하는 선수들의 이야기는 이전 호에서 다뤘던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안고 있었다.

매해 리그를 거듭하며 얻었던 긍정적인 면은 흡수하되, 이제는 잠시 쉼표를 안고 조금 더 튼튼한 몸체를 갖춰야 할 때가 아닐까. 잠시 숨을 고르고 난 뒤에야 비로소 더욱 강한 추진력을 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글/이혜은(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명예기자)
사진/대학스포츠 블로그 DB



법무법인 에이팩스 변호사 겸

장달영

에이전트

냉혹한 프로의 세계. 그 치열한 정글에서 선수들은 살아남기 위해 경기 말고 다른 외적인 요소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

이런 선수들 옆에서 경기 외에 다른 일들을 믿고 맡기는 든든한 조력자로, 때론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친구로서 다방면의 역할을 하며 선수들을 돕는 에이전트. 오늘 법무법인 에이팩스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스포츠 에이전트로 맹활약 중인 장달영 변호사를 만나 에이전트의 삶을 들어보았다.

스포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준 오아시스, 스포츠 에이전트

저는 중학교 시절까지 육상선수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운동을 그만둔 뒤, 학업에만 매진하게 되었고 그 후 운이 좋아 사법시험에까지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수 시절을 지속하지 못한 아쉬움 때문인지 항상 스포츠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특히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 공부해보고 싶은 생각이 강했습니다. 결국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도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했고, 그곳에서 스포츠 산업을 배우게 되면서 저는 본격적으로 스포츠와 법의 세계에 발을 담그게 되었습니다.

스포츠 에이전트 VS 스포츠 마케터

스포츠 에이전트는 선수를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마케팅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범위가 더 넓습니다. 에

이전트도 마케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에이전트에게는 반드시 의뢰인이 필요합니다. 이 의뢰인은 선수들인데 선수가 나에게서는 상품이 되는 것이고 이 상품을 최대한 좋은 가격과 환경에 팔아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마케터는 반드시 고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고객을 만드는 과정이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케터의 경우에는 선수뿐만 아니라 각종 이벤트를 포함한 서비스를 판매하는 일입니다.

험난함만큼이나 매력 또한 넘치는 길

대표적인 영화 '제리 맥과이어'에서도 극 중 초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면서 어려움을 겪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쫓겨나는 경우도 존재함은 물론, 선수 하나를 잡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선수를 잘 관리하여 최고

의 기량유지와 동시에 몸값을 유지 혹은 올리는 게 일인데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 선수의 예기치 못한 부상이라든가, 기대치만큼 기량 발휘를 못한다든가, 장기간 지속되는 슬럼프 또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커다란 위험이자 손실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으로 그만큼 보상 또한 큼니다. 선수가 관리를 잘 따라주고 기량이 만개하여 대중의 사랑을 받고 스타플레이어로 거듭났을 때, 그 화려함에 취하기도 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다는 자부심 또한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쁨이자 보상은 이 멋진 스포츠의 세계에서 내가 좋아하는 종목에 종사한다는 것, 이것이 제일 큰 기쁨이자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리고 1학년이던 김연아 선수와 함께

장미란 선수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에서

위기와 함께하는 직업, 순간순간에 대한 몰입만이 해결책

위기라는 것이 언제 어디서든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미 벌어진 일이고, 지나버린 일인데 거기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 그것에 구속되어 앞에 놓인 일들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위기를 맞이했을 때, 곤란한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이 문제로 인해 일주일을 고민하겠는가를 생각해봅니다. 그렇게 한 달 뒤는? 일 년 뒤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사실 지금 이 문제들은 전혀 그렇지 않을 문제들입니다. 그럼 저는 쿨하게 잊고 지나갑니다. 이러한 면은 스타플레이어들에게서도 많이 보입니다. 그들은 지나간 플레이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는 것. 그것이 곧 위기로부터의 탈출로 연결됩니다.

왜 스포츠와 법을 같이 공부해야 하는가?

스포츠가 규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

문에 종목별로 존재하는 다양한 규칙들을 숙지하게 된다면 훨씬 수준 높은 경기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요 근래 스포츠와 법에 관련한 대표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종대 선수의 도핑 문제라던가, 런던 올림픽 때 박종우 선수가 '독도 세레모니'로 인해 IOC 위반 규정으로 메달 수령을 못 할 뻔 했던 것들인데, 법을 알고 미리 숙지한다면 이런 문제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선수들이 훗날 지도자와 코치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좀 더 정확한 교육 또한 가능하게 되는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에이전트를 목표로 험난한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에이전트든지, 마케터든지, 자기 자신이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자기 평가를 먼저 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화려한 겉모습에 속아서 무작정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것 또한 직업이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있는 반면 실패자도 많습니다.

'정말 이 일을 해야겠다, 나는 이 일이 적격이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이 치열한 스포츠 시장에서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이미 팽배하다고 생각되는 유착관계를 비롯해 시장이 좁다는 다른 외적인 부정적인 요소에 집중하지 말고 본질에 초점을 맞추어 에이전트나 마케터에게 요구되는 진정한 실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글 · 사진/이태민(대학스포츠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사진/장달영 변호사 본인제공

성균관대 안방마님에서 홍익대 사령탑으로, 홍익대 야구부 장채근 감독



8, 90년대 해태 왕조를 기억하는가? 그 가운데에는 해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포수 장채근이 있었다. 프로 야구가 생기던 해, 성균관대 82학번으로 대학 무대에 발을 디뎠던 그가 해태 타이거즈를 거쳐 2011년 10월 홍익대학교 감독으로 돌아왔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성균관대 시절 이야기부터 약체였던 홍익대를 우승팀으로 탈바꿈시킨 이야기까지, 지금 들어보도록 하자.

* * *

성균관대 82학번 장채근

프로야구 원년은 1982년, 장채근 감독의 학번도 82학번이다. 지금은 많은 선수들이 대학보다는 프로를 목표로 하지만, 프로 야구가 생기기 전에는 대부분 대학에 진학했다. 프로야구 출범으로 분위기가 바뀌어 가기 시작할 즈음, 고교 선발로 뽑힐 정도로 주목받는 선수였던 장채근 감독은 프로와 대학의 갈림길에서 성균관대를 선택했다.

“그 당시는 거의 97~98%는 대학을 갔어요. 지금 하고는 완전히 딴 판이었죠. 나도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대학을 가기로 했는데, 82년도에 프로야구가 생기면서 해태 타이거즈에서 고졸 선수 중에 유일하게 나를 데리고 가려고 했었어요. 그때 당시 계약금이 2200만 원이었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해태로 가고 싶었

는데, 부모님이 대학을 가라고 해서 결국 성대로 가게 됐죠. 고등학교 때 선배들한테 많이 맞아서 그때 당시 제일 안 맞는 데가 성균관대학교라고 해서 연고대를 뿌리치고 성대를 선택했어요.”

성균관대학교 입학 후, 장채근 감독은 1학년 때부터 주전 포수에 4번 타자로 기용되었고 한희민, 김태원 등 좋은 투수들과 만났다. 이들과 함께 성균관대는 점차 강한 팀이 되었고, 1984년 춘계리그에서는 14년 만의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동기 중에 성균관대 이연수 감독이 있는데, 이연수 감독은 광주일고 포수였고 나는 광주상고 포수였고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었죠. 그런데 대학에 와서 보니까 같이 팀이더라구요. (웃음) 그리고 그때 당시 한희민, 김태원이라는 좋은 투수도 있었고, 우리가 3, 4학년 때는 성

적이 좋았죠. 3학년 때 14년 만에 우승했고, 4학년 때는 도 대회 준우승하고 4강권에 들어가고 하면서 야구를 잘 하는 편이었어요.”



성균관대 시절, 좋은 성적뿐 아니라 대학 생활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지금과는 다른 분위기였다고 그때를 회상하면서도, 더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우리 때는 야구부가 명문동에 있었기 때문에 미팅도 많이 했어요. 내가 또 고등학교 때만 해도 프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같이 열심히 하진 않고 대학 생활을 즐기면서 운동을 했었죠. 그런데, 그 때 그래서 입단하고 86-7년도에 백업으로 뛰었나 생각도 들어요. 대학교 때 더 열심히 했으면 바로 주전을 찾을 건데 후회도 되고요. 사실 대학을 다닐 당시에는 그냥 프로를 갈 걸 생각했는데,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내가 대학을 가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대학에서 힘을 더 쌓고 갈 수 있어서, 바로 프로를 가서는 프로 선수들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화려했던 전성기, 해태 타이거즈

그렇게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다시 한 번 해태 타이거즈의 부름을 받은 장채근 감독은 해태 타이거즈의 전성기와 함께 선수 생활을 하며 6회 우승, 3번의 골든 글러브, 포수로서 유일한 한국시리즈 MVP까지 누구보다 화려한 시기를 보냈다. 당시를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없었다’며 웃음을 지었다.

“6번이나 우승을 하면서 시즌 끝나고는 방송국 다니면서 바빴어요. 그래도 91년도 한국 시리즈 MVP 할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15타수 7안타 8타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4차전이 대전에서 열렸는데, 사실 서울로 와서 우승하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4차전을 이겨버렸어요. (웃음) 그 정도로 잘 되던 시절이 있었죠.”

당시 해태 타이거즈는 성적도 좋았지만 정도 많고 선후배 사이도 끈끈했다. 선수 생활 이후에도 코치 생활을 하며 20년간 몸담았을 정도로 각별했던 팀, 장채근

감독은 해태-기아 타이거즈에 대해 ‘내 집, 내 자식 같은 팀’이라고 말했다.

약팀에서 우승까지, 홍익대 야구부를 바꾸다

2011년 10월, 장채근 감독은 성균관대 선수가 아닌 홍익대 야구부 감독으로 대학 무대에 돌아왔다. 당시 홍익대는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 프로를 꿈꾸지도 않았고 훈련이 힘들어 그만두는 선수도 여럿 있었다. 하지만 장채근 감독은 선수들의 생각을 바꿨고, 다른 팀에서 허를 내두를 정도로 많은 훈련을 통해 강한 팀을 만들었다. 작년 2번의 준우승에 이어 올해는 부임 후 첫 우승을 거두기도 했다. 졸업생의 프로 진출도 눈에 띄게 늘었다. 장채근 감독의 첫 제자로 삼성에서 활약하는 이흥련이 대표적이다. 약팀에서 우승까지, 3년 만에 이뤄낸 변화였다.

“첫 시즌에 춘계리그전에서 5패를 당하고 자존심이 상했는데, 그 다음 하계리그전에는 3승 2패로 결승 토너를 올라가더라고요. 그때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2013년 작년에 첫 대회 준우승하고 애들이 달라졌죠. 프로를 포기했던 애들이 이제는 알아서 더 연습하고 있어요. 사실 학교에 ‘내가 뽑은 애들이 4학년이 됐을 때, 그러니까 내후년에 우승한다, 우승을 못 하면 유니폼을 벗겠다’ 장담을 했는데 올해 우승하니까 ‘2년이나 당겼네요’ 그러더라고요. 말할 수 없이 좋았죠.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고 앞으로도 조금만 더 하면 좋은 팀이 될 것 같아요.”

장채근 감독은 올해 우승에 만족하지 않고 1년에 우승을 3~4씩 할 수 있는 그런 강한 팀을 만들어 놓겠다고 이야기했다. 당장 내년부터도 쉽게 넘어지지 않을 거라며 자신 있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선수들을 지도하고 강한 팀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장채근 감독, 그의 마지막 한마디에서 그 이유와 제자들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홍익대학교를 안 나왔지만 내 제자들이니까 그렇게 키워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글/임예지(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사진/이규호(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명예기자)

대학운동부 평가지표 개발 연구 마무리

대학스포츠 활성화의 새로운 밑그림이 될 대학운동부 평가지표 개발 연구가 마침내 마무리됐다.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이 맡아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진행한 이 연구는 정부 주관 대학평가 내 대학운동부 평가지표 반영을 위한 연구와 대학운동부 지원을 위한 대학운동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두 개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졌다. 대학스포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대학스포츠 전문가 회의를 수차례 개최했으며, 대학운동부 지도자 직무 교육 시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기도 했다.

KUSF는 이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정부 주관 대학평가 내 대학운동부 평가지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건의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2014년 대학운동부 지원 사업을 첫 실시한 데 이어 2015년 그 규모를 확대해 대학운동부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인 KUSF는 대학운동부 평가지표를 활용한 대학운동부 평가를 통해 대학운동부 우수 육성 대학을 지원함과 동시에 대학운동부 체질 개선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대학농구동아리 U리그 폐막

지난 9월부터 12주간 펼쳐졌던 대학농구동아리 U리그의 폐막식이 12월 7일(일) 오후 3시, 연세대학교 체육관에서 거행됐다. 대학농구동아리 U리그 최강전 결승 경기 종료 직후 선수들의 뜨거운 열기가 채 식지 않은 가운데 열린 폐막식은 12주간의 대장정을 마친 선수들을 위한 강신욱 대회사위원장(KUSF 집행위원장)의 격려사에 이어 시상식으로 꾸며졌다. 2014년 대학농구동아리 축제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는 선수들의 얼굴에서는 우승에 대한 환호와 패배에 대한 아쉬움, 동료와 함께한 추억에 대한 보람 등 많은 것이 비춰졌다.

한편, 이날 폐막식에는 이 대회와 대회사위원장이자 KUSF 집행위원장이 강신욱 단국대 교수를 비롯하여, 대회사위원장이자 KUSF 집행위원인 박장근 명지대 교수, 정재용 KBS 기자, 박용규 대학배구연맹 부회장, 장봉군 전국대학교체육부(과)장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제7기 활동 마침표

12월 31일(수)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제7기가 6개월간의 활동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학축구·농구·배구 리그의 열기가 뜨거워진 시기인 7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제7기 기자단은 대학축구·농구·배구리그와 그 외 각종 대학스포츠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발로 뛰었다. 특히 이번 활동 기간에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과 제95회 전국체육대회와 같은 큰 스포츠 행사가 이어져 기자단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취재열정을 불태웠다.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제7기 14인의 수료식은 12월 23일(화) KUSF 사무처에서 열렸으며 대학스포츠 현장의 구석구석을 거침없이 누비며 대학스포츠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다니 김유미 학생기자(건국대), 임예지 학생기자(서울교대), 이태민 학생기자(인하대) 3인이 우수활동자로 선발되었다.



취재 후일담

집이 지방이라 거의 끝나가서야 시작할 수 있었던 대학농구동아리 U리그 취재. 창원과 서울을 몇 번이고 오가느라 몸은 축났지만 열정 있는 많은 사람들은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마침 제 친구, 후배가 대회에 참가하고 있어서 '결승에서 봅시다.'라고 했는데 볼케이노 vs ZOO가 결승에 땡! 간만에 이기는 편, 우리 편의 기분으로 경기를 봤네요. 참가했던 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처음이라서 미숙한 부분도 많았겠지만,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내년에는 좀 더 멋진 대회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참가하신 모든 선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준(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드래프트 6라운드에서 수원FC의 지명을 받은 광운대 정기운이 전북 유니폼을 입을 뻔 했습니다. 2014 U리그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천금 같은 골을 터트리며 광운대를 우승으로 이끈 정기운을 점 찍어놓은 전북이 6라운드에서 수원FC가 정기운을 지목한 걸 듣지 못하고 번외지명에서 정기운을 지목한 거였죠. 이번 시즌 K리그 클래식 우승을 차지하며 명문구단으로 거듭난 전북에서 뛰지 못한 건 정기운에게 큰 아쉬움으로 남을지 모르겠습니다. 정기운의 극적인 결승골을 지켜보고 취재했던 기자로서, 전북 현대 팬의 한사람으로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었습니다.

김범기(대학스포츠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먼저 6개월 동안 기자단에 몸담으면서 처음 참여한 웹진이 나오게 되어 영광입니다. 어느덧 벌써 모든 대학리그가 끝나고 내년을 위한 담금질에 들어갔네요. 다음 시즌을 기다리며 12월에 취재했던 마지막 K리그 드래프트 현장은 대학선수 전체 인원 대비 취업을 0% 대라는 수치가 말해주듯, 한파만큼이나 찬 바람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사회로의 진출은 선수들에게 좌절과 시련이 아닌 도전의 기회입니다. 이제는 전국, 아니 세계 곳곳에서 활약할 선수들의 앞날에 응원을 보냅니다.

김유미(대학스포츠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인하대 정구부를 찾아갔던 날. 사실 정구부는 오후 훈련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바람이 센데다 눈까지 내려서, 훈련이 스케줄에 있었어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휴식도 반납하고 나와서 직접 훈련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짝막하게 정구를 가르쳐주어, 저도 잠깐 정구의 맛을 보기도 했어요. 더 배워보지 못한 게 아쉬울 정도로 정구는 색다른 손맛으로 저를 유혹했습니다. 올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봄이 오면 아마 저는 정구장에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민(대학스포츠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이번에 야구대제전을 다녀왔는데요. 그동안 가던 대회와는 달리 고교, 프로, 은퇴 선수들도 함께 하고, 시즌 후에 이루어져서 그런지 유쾌하고 즐거운 분위기였어요. 날씨가 너무 너무 춥긴 했지만, 정말 재밌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그동안 정말 가고 싶었던 장채근 감독님 인터뷰를 다녀왔습니다. 감독님의 선수 시절 이야기나 직접 보지 못했던 예전 프로 야구 이야기, 그리고 인터뷰 질문 외에도 여러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정말 재밌었던 인터뷰였는데요. 이야기에 빠져들어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내지 못해서 그리고 직접 듣는 것만큼 재밌게 담아내지 못해 아쉽기도 한데요.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시고 긴 시간 많은 이야기해주신 장채근 감독님 감사합니다.

임예지(대학스포츠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내에서 블로그뿐만 아니라 대학스포츠 TV에 이어 웹진까지! 대학스포츠를 만날 수 있는 채널이 늘어나고 있어 매우 기쁩니다. 또한 이 뜻깊은 현장에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지난 대학배구 드래프트 1라운드 파헤치기 기사에 이어 이번에는 대학배구 비시즌 동안 학생선수들이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시즌이 끝난 후 휴식도 잠시, 내년 시즌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면서도 학생 신분으로 돌아가 기말고사에도 열중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제 개인에게 있어서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감사한 자극제가 된 취재였습니다. 날씨만큼은 춥지만 이번 호 웹진 보시면서 마음만은 따뜻한 나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선우(대학스포츠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명예기자)

2014년 11월, 대스협 웹진이 처음 창간되었지만 기사를 쓰는 것은 처음입니다. 기자단 4기와 5기에서 활동하며 배구와 농구, 그 중에서도 농구 기사를 주로 써왔는데 대학리그의 3종목 선수들을 함께 취재해 본 것은 처음이라 많이 어설프고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역시도 새롭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코너가 대학리그를 여러 측면에서 조명해 보는 코너인 만큼 학생선수들의 입을 통해 들은 대학리그는 어느새 꽤 커다란 거인이 되어 있었고, 동시에 이전에 이야기 되었던 문제점들도 다소 드러났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수 입장에서, 팬 입장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대학리그를 조명하며 더 나은 모습을 위해 발전하는 모습은 분명 대학리그의 미래가 앞으로 더욱 밝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 같아, 대학스포츠 기자로서, 한 명의 팬으로서 뿌듯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혜은(대학스포츠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명예기자)